

< 서양 현대미술, 아시아를 만나다 >

5. 아시아 사상에 뿌리를 둔 인지 경험의 예술: 순수 추상과 미니멀리즘

정윤아 (크리스티 스페셜리스트)

참고문헌: The Third Mind, American Artists Contemplate Asia pp. 287-331

강의 주제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뉴욕과 서부 지역의 예술적 전개를 살펴본다. 라인하트의 검은색 회화 연작에서부터 미니멀리즘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예술에서 나타나는 아시아 사상과 명상적 실천을 짚어보기로 한다.

1. "Timeless in Asia" 감상: 라인하트와 순수 추상성

(1) 애드 라인하트 (Ad Reinhardt, 1913-1967)

1961-67년에 걸쳐서 검은 색 회화 연작 발표.

1961년, 그의 시리아, 요르단, 터키 여행에서 얻은 이슬람 건축, 장식에 대한 연구 반영. 라인하트의 검은 회화에서 보이는 반복적, 규정적 기술은 이슬람 문화만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의 오브제 제작에 있어서의 제의적 접근 방식에 기반. 그는 특히 중국 산수화, 탄트라 만달라, 불교 조각을 높이 평가하고 찬양. 1944-52년까지 뉴욕 대학에서 아시아 미술사를 공부. 힌두교와 불교 책, 아시아 미학 관련 서적, 특히 도덕경에 많은 영향. 자신의 노트에 "비물질화, 비 존재/절재적 자유의 어둠" 또는 "어둠은 순수한 비 존재이다" "남는 것은 공허, 어둠, '제거'"라고 기록.

라인하트에게 예술은 집중된 명상 행위를 통해서 의식을 정화하기 위한 특정 힘(윤리적 권한)을 지닌 인지적 경험. 그는 보는 것의 개념을 시각적 이벤트에서 현상학적 과정으로 이동.

(2) 앤 트루잇 (Anne Truitt, 1921-2004)

일본에서 활동한 미니멀리즘 계열 조각가. 저드는 그녀의 작품을 라인하트로부터 파생된 예술로 비판. 미니멀리즘에 있어서 아시아 사상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녀의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짐.

(3) 아그네스 마틴 (Agnes Martin, 1912-2004)

1966년에 구겐하임미술관에서 기획된 "체계적 회화" 전에 라인하트와 더불어 그녀의 작품도 출품. 뉴멕시코의 사막에 혼자 거주. 1960년대 초반, 자신의 전형적 스타일인 격자 무늬 회화 시작. 환원적, 반복적, 기하학적, 화면 전체를 아우

르는 통합된 구성은 다른 미니멀리즘 동료들과 유사하나, 마틴의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가벼움은 그녀만의 특징. 라인하트, 터틀과의 친분과 아시아의 명상적 철학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배경. 라인하트와 마찬가지로 예술, 자연, 고독의 철학에 관한 글에서 드러나듯이 도교와 불교를 순수 추상에 대한 그녀의 인본주의 철학의 원천으로 삼음.

(4) 리처드 터틀 (Richard Tuttle, 1941-)

선 불교 사상에 매우 심취.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이분법에 기반, 모더니스트 예술을 향한 분석적 자세를 취한 라인하트가 아시아의 초월적 실재의 속성을 찬양했다면, 터틀은 일상의 덧없음을 수용. 일상적 재료에서 삶의 본질을 찾고자 함.

2. Ecstatic Minimalism: 인지 경험과 아시아의 담론

(1) 미니멀리즘과 현상학, 그리고 명상

로버트 모리스, 칼 안드레, 월터 드 마리아, 댄 플래빈, 리처드 세라의 작품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공간적, 참여적, 퍼포먼스 요소가 가미된 체계로 시간과 전체 맥락과의 연관성. 아시아 사상을 도입한 결과. 예를 들어, 모리스의 조각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객의 카타르시스와 상호작용을 위해 존재.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을 특정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지하고 명상하는 주체로 자각하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

(2) 서부지역의 작가들.

서부 지역의 Light & Space 예술가들 가운데 로버트 어윈은 미니멀리즘이라는 꼬리표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예술을 "인지 경험의 예술"이라 명명. 존 케이지가 침묵을 도입하였듯이, 이들은 환원, 반복과 인지적 의식을 확대하기 위한 부정을 도입. 흐름, 우연, 비결정성의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지속성, 빛, 조화의 구조에 집중. 어윈이 오브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빛을 사용하였다면, 인지 심리학의 학생이었던 제임스 터렐은 빈 공간을 본질적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빛을 사용. "빈 공간은 단단하며 딱 차 있고, 결코 비워 있지 않다"고 표현.

모리스에서부터 많은 미니멀리즘 비평가에 이르기까지 후셀, 하이데거와 메를로 폰티의 이론은 불교 사상과 더불어 큰 영향. 물론 불교 그 자체가 이들 미술가들의 주제는 결코 아니었으나, 라인하트에서부터 어윈에 이르기까지 의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마음에 대한 불교적 관점이 존재와 비 존재, 내재와 초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해체하고 창조적 방법론으로 변환시키는 데에 토대가 된 것은 분명.